

세계적 장애인 조각가 이원형 & 소설가 최일옥의 인생 공감

예술을 넘긴 조각가 이원형씨와 소설가 최일옥씨는 살아온 세월도, 몸의 불편함도 건너뛴 '죽고 못사는' 친구사이다. 한국과 캐나다를 넘나들며 우정을 쌓아온 지 7년, 모처럼 만에 만난 두 사람은 이제는 안줏거리가 된 아픈 과거와 더없이 행복한 요즘 생활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위제, 지희진(작품가자 사진, 이지영(studio lamp))

육십 평생을 서로 모르고 살다가 7년 전 만나 '소울메이트'가 된 조각가 이원형(64)씨와 소설가 최일옥(60)씨가 최근 의기투합해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지난 6월 2일부터 10일간 서울 논현동 갤러리 경에서 열렸던 '캐나다 교포 조각가 이원형의 조각전이 그것' 앞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될 대규모 자선 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시 수익금은 모두 아프리카 여성과 어린이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원형 작가는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조각공원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조각가. 미국 국제조각협회 상임 멤버, 미국 버몬트 아트 스튜디오 센터 이사 등을 맡고 있고, 중국 루닌대학 등 세계 곳곳의 대학에서 들뢰즈 미학을 강의하는 등 세계 조각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그의 작품은 매년 세계적 경매 회사인 영국 소더비에 초대받고 있고, 가장 비싼 작품은 1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적 정서가 녹아 있는 구상 작품부터 최근의 추상 작품까지 60여 점을 선보였는데, 다양한 작품이 한 공간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큐레이터 역할을 자칭한 소설가 최일옥의 공이 컸다. 최일옥씨는 「중앙일보」 기자로 시작해 「여성중앙」 창간 멤버로 활약했고 남성지, 자동차 전문지 등 16개의 잡지를 창간한 유명한 잡지장이. 23년 전 동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에 데뷔해 소설 「꽃은 혼자 피고 혼자 웃는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그녀가 이번 전시의 큐레이팅을 처음으로 맡은 것은 단순히 이원형 작가의 친구라서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한 전공자였다 조각 애호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작가의 작품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적 교감으로 맺어진 단짝 히스토리

전시회 때문에 한국을 찾은 이원형 작가는 경기도 용인의 전원마을, 향린동산에 있는 최일옥씨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마당에 들어서자 들성들성 놓인 lm가 넘는 조각들이 눈에 띄었다. 최일옥씨가 구입한 이원형 작가의 작품들이었다. 기척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던 이원형 작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왔다.

세 살 무렵 소아마비를 앓은 그는 유난히 짧고 가늘어진 한쪽 다리 때문에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 이렇듯 불균형한 몸으로 인해 오른쪽 어깨도 위로 솟아올라 몸을 움직이자면 남들의 몇 배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악수를 청하며 그가 내민 손을 잡으니 남들보다 강한 힘이 느껴졌다. 어제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다는 두 사람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밝은 표정이었다. 이



말고도 험한 길을 걸었던 이원형 작가와 최일옥 작가는 그 귀한 경험을 작품에 고스란히 녹여내고 있다.

이 작가는 최 작가의 장편 가장 오른쪽에 놓인 조각 작품 'A Family' (2009) 같은 추상 작품으로 예술성을 표현해 내는데, 고통받고 있는 듯한 인체의 형상을 표현해 인간의 연약함과 욕망 등을 건드린다. 최일옥 작가 역시 자신의 무병 생활을 담은 에세이를 쓰고, 힘든 무명의 인생에 대한 단편 소설집 등을 펴내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다.